

물과 새와 나무숲이 모두 부처님을 생각하네

동산사 ①

의풍사에서 백차(白茶)를 한 통 선물 받고 동산사(洞山寺)로 가는 중이다. 동산사 앞에 조동조정(曹洞祖庭)이란 말이 관용구처럼 붙는 것을 보면 조동종(曹洞宗)의 발상지임을 알 수 있다. 동산사가 있는 동안향 동산촌이 그리 먼 거리는 아니지만 도로 사정은 아직도 팍팍한 것 같다. 순례 일행은 예정보다 시간이 걸려 동안촌에 도착하여 조감도를 바라 본다. 동산사 역시 의풍사의 자존심인 듯 큰 불사를 할 모양이다.

동산, 개울물에 비친 그림자에 홀연히 깨닫다

주차장에서 계곡을 따라 오르는 산길이 꼭 우리 산중의 절 같다. 계곡도 크지 않고 소박하다. 개울물 소리가 돌돌 들린다. 조금 더 오르니 누각 형태의 봉거교(逢峯橋)가 나타난다. 거(槩)는 동산 선사의 그림자다. 개울물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만난 다리라는 뜻이다. 동산은 물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그때 동산이 남긴 오도송을 과수계(過水偈)라고 부른다.

동산이 일명 봉거교라고 부르는 과수계를 읊조리게 되는 계기가 있다. 운암 선사의 '한 마디'에 걸려 그 말만 생각하며 개울물을 건너다 자기 그림자를 보고 그 '한 마디'를 타파했던 것이다. <동산록>은 동산이 운암 선사와 나누는 얘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하직인사를 하는 동산에게 운암 선사가 말했다.
"어디로 가느냐."
"스님과 이별하긴 합니다만 갈 곳을 정하진 못했습니다."
"호남으로 가지 않느냐."
"아닙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조만간에 되돌아오게."
"스님의 안주처가 있게 되면 오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헤어지고 나면 만나기 어렵겠지."
"만나지 않기가 어려울 겁니다."
동산이 다시 물었다.
"돌아가신 뒤에 홀연히 어떤 사람이 스님의 참모습을 찾았다면 어떻게 대꾸할까요."
운암 선사가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
"그저 이것뿐이려네."
동산이 잠시 머뭇거리자 운암 선사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양개화상! 이 깨치는 일은 정말 자세히 살펴야 하네."
순간 동산은 운암 선사의 한마디에 사로잡혀버렸다. 오로지 그 한마디만 생각하며 개울물을 건너다가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크게 깨달았다. 과수계가 절로 터져 나왔다.

남에게 찾는 일 절대 조심할지니 자기와는 점점 더 아득해질 뿐이네 내 이제 홀로 가나니 가는 곳마다 그분을 뵈오리 그는 지금 바로 나이지만 나는 지금 그가 아니라네 모름지기 이렇게 알아야만 여여(如如)에 결합하리라.

물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자성(自性)을 본 동산인데, 우리나라 진각 국사의 계승을 떠올리게 한다. 중국 선가에 '조동농부 임제장군'이란 말이 있듯 동산의 가풍은 차분하고 소박하다. 내가 좋아하는 진각 국사의 계승이 하나 있는데, 국사는 동산 선사보다 갑수성이 더 풍부한 분이 아니었을까 싶다.

못가에 홀로 앉았다가 못 아래서 중 하나를 만났다. 묵묵히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나니 말 걸어도 대답하지 않을 걸 나는 안다네.

스승에게 물었다.
"저에게는 눈 귀 코 혀 등이 있는데, <반야심경>에서는 왜 없다고 하나?"
이에 스승은 즉시 오설산(五洑山)으로 가 영목 선사에게 머리를 깎으라고 권유했다. 그리하여 스님은 오설산에서 삭발하고 머문 뒤, 21세에 송산 비구계 단으로 가 구족계를 받고 남방으로 만행을 떠났다.
어느 날 스님(동산)은 남전사에 주석하고 있는 남전 선사를 참방하게 되었는데, 마침 선사의 스승인 마조 대사의 제삿날이었으므로 대중스님들이 제(齋)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남전 선사가 대중에게 묻고 있었다.

동산이 다음으로 참방한 스님은 위산 선사였다. 동산은 방장실로 가 예를 갖추어 인사를 한 뒤 위산 선사에게 물었다.
"지난번 소문을 들으니 남양 혜충 국사께서는 무정도 설법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위산 선사가 말했다.
"그대는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가."
"기억합니다."
"그럼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게."
"어떤 스님이 '무엇이 옛 부처의 마음입니까' 하고 묻자 '담벼락의 기와 부스스러기다' 라고 말씀했니

'스님께서 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무정이 설법을 하는 줄 안다는 것입니까.'
"내가 듣는다면 모든 성인과 같이저서 그대가 나의 설법을 듣지 못할 거네."
혜충 국사는 그 스님과 몇 번 얘기를 나눈 뒤 <화엄경>의 '세계가 말을 하고 중생이 말을 하고 삼세 일체가 말을 한다'는 부처 말씀을 예로 들었다. '삼세 일체가 말을 한다'란 두말할 것도 없이 생명이 있는 유정(有情)과 나무와 돌맹이 같은 무정이 다 설법을 한다는 뜻이었다.
동산이 혜충 국사에게 들었던 얘기를 마치고 위산 선사에게 물었다.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스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에 위산 선사가 불자(拂子)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알겠느냐!"
"모르겠습니다. 스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부모가 낳아주시는 이 업으로는 끝내 그대에게 설 명해 줄 수 없네네."

귀로 들으면 끝내 알 수 없고, 눈으로 들어야만 알 수 있으리

결국 동산은 위산 선사를 하직하고 운암 선사를 찾아가게 된다. 운암은 풍릉 유현의 동굴에 머물고 있었으므로 동산이 그곳으로 갔던 것이다. 원래 운암은 경을 두루 공부한 학인이었는데, 동굴에 들어 무정의 설법을 들으며 정진하는 도인이 분명했다. 동산이 무정의 설법은 어느 경전의 가르침에 해당하는 것이냐고 묻자, 운암 선사가 <아미타경>의 '물과 새와 나무숲이 모두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한다'라는 부처님 말씀을 얘기했다. 순간 동산은 견처(見處)가 열렸고 그 감흥을 계승으로 읊조렸다.
'정말 신통하구나 정말 신통해/ 무정의 설법은 불가사의 하대네'

귀로 들으면 끝내 알기 어렵고/ 눈으로 들어야만 알 수 있으리!

이후 동산은 운암 선사를 더 시봉하다가 하직하고 개울물을 건너는 도중에 무심코 자기 그림자를 보고 대오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 그림자가 설법하는 불가사의한 무정의 설법을 귀가 아닌 눈으로 들었던 것이다.

개울가로 난 산길을 조금 더 올라가니 숲단지 형상의 분지가 나타나고 오른쪽에 보리선사(菩提禪寺)가 보인다. 동산 선사가 개창할 때는 광복사(廣福寺)였다가 복송 때 보리선사로 개칭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순례 일행에게는 조동조정 동산사가 더 자연스럽다. 산문 입구에 동산 선사가 심었다는 나한송(羅漢松) 한 그루가 눈길을 끈다. 작달막한 나무인데, 동산 선사가 심을 때에 지었다는 계승 한 수가 안내문에 소개되어 있다.

길이가 고작 삼척 남짓/ 향기로운 풀에 덮여 있네 어느 시대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나한송을 볼 수 있을 길세

(長三尺餘 郁覆芳草 不知何代人 得見此松老)
동산 선사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지는 계승이다. 나한송의 무정설법을 들을 수 있는 뒷사람을 기다리며 심는다는 서원의 계승이 아닐까 싶다. 천년 나한송의 무정설법을 듣기보다는 사진 한 장으로 나한송을 담으려는 내 심사가 문득 허허로워진다.

글=정찬주, 사진=유동영



동산 선사가 개울물에 비친 자기 그림자를 보고 깨친 개울물 위에 누각형태의 다리(봉거교, 逢峯橋)가 세워졌다.

봉거교에 중국인 남녀 몇 명이서 사진을 찍고 있다. 동산사가 의풍시의 관광지가 돼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 계곡이 크지는 않지만 아기자기한 아취가 있는 풍광이다. 산세도 동산의 가풍을 닮은 것 같아 가는 산길이 정겹다.
동산 스님의 휘는 양개(良价)이며 절강성 소흥 출신으로 속성은 유(俞)씨로 알려져 있다. 스님은 8세에 동진 출가하여 2년 동안 행자로 지냈다고 한다. 그때 스승이 시키는 대로 <반야심경>을 외다가 '무언비설신'이라는 구절에서 문득 얼굴을 만지며

"내일이 마조 스님 제삿날인데 스님께서 오시겠느냐 오시지 않겠느냐."
대중이 아무도 나서 말하지 못하자 동산이 대답했다.
"도반이 있다면 오실지 모릅니다."
"이놈이 후학이긴 하지만 가르쳐볼 만하군."
"스님께서서는 양민을 놀려 천민을 만들지 마십시오."
훗날 이와 같은 법거량은 마조제일(馬祖祭日)이라는 공안이 된다.

다. 그러자 어떤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담벼락과 기와 부스스러기는 무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데도 설법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대 스스로 듣지 못할 뿐이지. 그러니 듣는 이들에게 방해가 되서는 안 되네.'
'어떤 사람이 듣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성인이 듣지.'
'스님께서서는 듣지요.'
'나는 듣지 못하지.'

since 1999
행복한 '다행' 아제 여행사

다음검색 "아제 여행사"
☎ 02) 730-4008

선사들의 서릿발 화두기가 지금도 강하게 흐르는 옛 선사들의 선적지!!
최고의 노하우 **아제아제바라아제 아제 여행사 !!!**

부탄을 체험하는 여행사
의말라야 온든왕국 부탄/다질링 9일
차의지방 다질링 - 파로 - 수도 팀푸 - 여왕궁 푸니카 - 파드마삼바바 수행동굴 탁석

출발: 4/7, 5/12 (월, 목 출발가능)
3,090,000 / 1인
▶ 홈페이지: <http://www.ajetour.co.kr/>

중국 강오선종사찰 8일 (11분 선사)
남약회암 / 마조선사 / 백장선사 / 대우선사 / 황벽선사 / 위산선사 / 양산선사석상선사 / 양기봉회 / 석두회진 / 동산선사

출발: 5월 23일 (2차)
동참금: 1,590,000원 ~ / 1인
※ **돌앞의 잣나무 (정찬주 작가) 증정**

일본의 나라 PIPIPA
- 100m 헤다코대
- 탁발공양의 스님들
- 2500여개의 불탑의 불세
- 수상경적을 하고 싶어하는 해호

4월 13일 = 6인 \$ 1,620,000원
5월 22일 = 6인 \$ 1,620,000원

만발레이 - 해호
- 100m 헤다코대
- 탁발공양의 스님들
- 2500여개의 불탑의 불세
- 수상경적을 하고 싶어하는 해호

4월 13일 = 6인 \$ 1,620,000원
5월 22일 = 6인 \$ 1,620,000원

실크로드&불교로드 7일
- 병령석굴 - 트루판 - 동황석굴 - 우루무치
- 4월 12일 1,850,000원 / 1인

구와산/보타산 6일
- 지장보살 / 관세음보살화현처
- 4월 10일 1,090,000원 - 5월 27일 1,190,000원

밀라레파 파드마삼바바 아티사 성인들의 이야기
티벳으로 떠나는순례
great adventure!!

(티베트 / 하승역차)
4월 6일 출발 - 1,690,000
5월 15일 출발 - 1,890,000
6월 13일 출발 - 1,890,000

▶ 지구상 최고도를 달리는정경 견학 **하승열차**
▶ **달라이라마 정교일치의 궁 포콜라궁**